



펴낸날 2024. 03. 13.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사랑하는 후원자 여러분!

사순 제3주일 복음은 예수님의 열정과 성전 정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에는 중요하고 아름다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즉 성화와 정화입니다. '성화'에는 거룩한 불(聖火), 거룩하게 함(聖化) 등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에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淨化)는 뜻도 있고, 골자나 요점, 본질을 뜻하는 정화(精華), 정수(精髓)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精華, 精髓)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성전이 어지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열정(성화 聖火)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聖火)가 성화(聖化)된 성전으로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화(淨化)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의 공생활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 말기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궁극적인 열정적 행위는 아마도 그의 유죄판결과 죽음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컨빅션(conviction)이란 중요하고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컨빅션은 확신(확고한 신념)과 '유죄 판결'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확신(conviction)으로 인해 유죄 판결(conviction)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확신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 말이나 행위로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한 일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일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제시합니다. 사도 성 바오로는 우리도 모두 하느님의 성전입니다(1코린 3,16-17)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 우리의 성전도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신성한 상징으로서 성전을 생각해 보면, 성전이 지구가 될 수도 있고, 인간 사회, 교회, 가족, 인간의 몸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성전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선주민이나 이주민, 젊은이나 노인, 남자나 여자, 성직자나 평신도 등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원고삼 베드로 신부

About me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꾸엔이라고 해요. 요리하는 것과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에 온지 12년차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부하다가 알록달록협동조합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 같이 물건을 만들고 거리에서 판매를 하러 나가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나의 가게를 꼭 만들어 직접 운영하고 싶어요. 알록달록협동조합에 일이 더 많아지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앞으로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나에게 알록달록협동조합은 '편한 곳'입니다.

알록달록 이야기



Contact Me

02-6951-2046(주문문의)
ardrcoop@gmail.com



Product Details

품명: 미니 버킷백 (₩15,000)

#100% 면소재, #핸드메이드, #와펜
그 밖에 다양한 제품들을 알록달록 공방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후원미사 안내*

3월 후원미사는 3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후원계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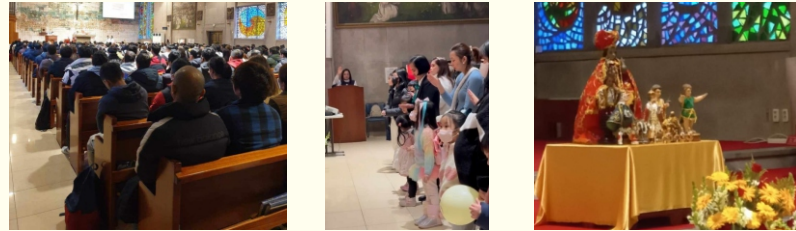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필리핀 공동체 소식*

산토니뇨(Santo Niño) 축제는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산토니뇨상(아기예수상)은 1521년 세부 족장과 그의 백성이 가톨릭 세례를 받은 후 스페인 선교사들이 족장의 아내인 조안나 여왕에게 세례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필리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산토니뇨 축제가 가톨릭 신앙 시작의 상징이고 산토니뇨상에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축제는 1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거행되며 필리핀 공동체도 1월 21일 헤화동 성당에서 산토니뇨상 축복과 미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축복하며 산토니뇨 미사를 기념하였습니다.



이주민 상담실 소식*

상담실에서는 의료, 임금체불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이주민들을 위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 중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 되었던 사례를 후원회원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페루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 A씨는 2019년 한국에 입국하여 식당 등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본국의 사정이 더욱 어려워 미등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숨씨가 좋아서 향초, 목공 소품 등을 만들거나 중고 옷을 리폼하여 팔기도 하면서 지내다가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민 산모인 A씨에게는 한 번에 30만 원이 넘는 산전 검사 비용을 지불하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상담실에서 동행하여 CMC 병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기 위해 정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던 중, 태아의 심장혈관 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기의 건강이 물론 우선적으로 큰 걱정이었지만, 혹시라도 출산 후 심장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억대를 호가하는 상상 초월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산모는 물론 위원회 상담실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라파엘클리닉, 바보의 나눔, 서울대병원 사회사업팀 및 주치의, 마음자리 쉼터 등 많은 단체와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적절한 치료,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12월 말 너무나 예쁜 여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걱정했던 마음이 무색하게 심장의 혈관 기형은 있으나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A씨는 아기의 무사함에 감사했고 여러 도움의 손길들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중국 공동체 소식*



지난 1월 7일을 시작으로 중국공동체는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 동리촌 신부님(성골롬반외방선교회 소속)께서 미사를 집전해주고 계십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 이주민은 많지만 신자는 매우 적습니다. 비록 미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적지만 이 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힘써주고 계십니다.

베트남 공동체 소식*



타국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베트남 신자들을 위해 설날 맞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설날 미사에 나무를 만들어 말씀사탕을 걸어놓고 하나씩 뜯는 문화(LOC THANH)가 있습니다. 이 말씀사탕을 한 해의 하느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기억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설날 전통 음식을 만들어 나눔하였으며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에게는 택배배송하여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남미 공동체 소식*



남미공동체 학생들이 지난 2월 19일에 우정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미공동체와 함께 하며 자란 아이들로 각 가정마다 다양한 희노애락이 많았지만 잘 성장하여 어엿한 학생,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커서 다 함께 웃으며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서 매우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베들레햄어린이집 소식*



<졸업식>



<과학활동>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안내*

- Q.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위원회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두가 등록되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 Q.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연말까지 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분들은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으로 발급되며 교무금과 합산되어 보여집니다.
- Q. 가족 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후원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오니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으시려는 분 명의로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 외 타인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어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신청자는 등록되었으니 따로 연락주시지 않아도 됩니다.